

대한민국 경찰의 뿌리 임시정부 제3대 경무과장 권준 장군

권준(검교공과, 32세, 1895-1959) 장군은 중경 임시정부에서 제3대 경무과장을 지냈다. 1944년 중경(重慶) 임시정부에 들어가 내무부차장 겸 경무과장으로 활약하다 광복을 맞이해 귀국했다. 임시정부 경찰조직은 상해임시정부 시절인 1919년 4월 25일 대한민국 임시정부 장정 공포로 임시정부 경찰조직인 내무부 '경무국' 직제와 분장사무가 처음 규정됐다. 초대 경무국장은 백범 김구이다. 경무국은 이후 경무사, 경무과, 의경대, 경위대로 그 명칭을 달리하다 중경 임시정부 시절에 다시 경무과로 직제가 변경된다. 이때 권준 선생이 마지막 제3대 경무과장을 역임했던 것이다.

지금까지는 대한민국 경찰이 일제강점기 때 일본 경찰에서 유래했다고 잘못 알려져 있었으나 대한민국 경찰의 뿌리는 임시정부 경무국이라는 사실이 밝혀졌다. 따라서 경찰청은 3.1운동 및 대한민국 임시정부 100주년을 맞이해 잘못된 인식을 바로잡기 위해 임시정부 경찰 후손으로 구성된 임시정부 경찰담사단을 구성해 임시정부 발자취를 찾아 나섰다. 그 중 인천경찰청 최재황 경위는 임시정부 제3대 경무과장 권준 선생의 외증손인 것으로 알려졌다. 권준 장군에게는 큰 딸 태옥(權泰玉)과 아들 태휴(泰休)와 태환(泰煥)이 있었다. 큰 아들 태휴(1917-1989)는 권준 장군과 함께 독립운동에 투신해 그 공로를 인정받아 건국훈장 애국장을 추서 받았고 대통령표창도 받았다. 태옥은 중국에서 일제 권준 장군을 암살하려고 할 때 권준 장군의 생명을 구해주었던 최장학(權長學)과 결혼한다. 권준 장군이 난관을 주선했다고 한다. 최재황의 할아버지인 최장학은 건국훈장 애국장을 추서 받았다. 이런 인연으로 권준 장군의 외증손 최재황 경위가 참가한 담사단은 '민주, 인권, 민생경찰의 뿌리'라는 제목으로 대한민국 임시정부 경찰의 생생한 흔적을 다큐멘터리로 제작하기도 했다. 이렇게 제작된 다큐멘터리는 지난 1월 31일 전국 경찰지휘부 워크숍 개최 시에 약 400여명의 경찰 간부들이 시청했다고 한다. 또한 3월 1일 KBS 1TV에서 생방송 3.1절 특집 방송으로 최재황 경위가 직접 출연해 권준 장군에 대해 소개할 예정이라고 한다. 최경위는 KBS 2TV '아침이 좋다'라는 프로그램에 121회나 출연해 경찰홍보방송을 진행했던 방송맨이기도 하다.

권태옥 할머니는 최경위가 초등학교 3학년 때 별세했다고 한다. 할머니는 늘 권준 외증조부 얘기를 했다고 한다. 그래서 담사단으로 중경 임시정부 청사를 방문했을 때 할머니가 보존하고 있던 권준 장군의 원본 사진을 액자로 만들어 8장이나 중국 측에 기증했다고 한다. 현재 할머니 묘소는 대전 유성구 학하동에 위치하는데 최경위가 지극 정성으로 돌보고 있다고 한다.

권준 장군은 경상북도 상주가 고향이다. 1917년 광복회에 참여해 항일투쟁을 격렬하게 전개하다 만주로 망명해 이회영, 이시영 형제 등 독립운동가들이 독립군 양성을 목표로 설립했던 신흥무관학교를 졸업했다. 1921년 김원봉과 의열단을 조직해 군자금 조달, 폭탄 제조 등의 임무를 담당해 중로경찰서, 총독부, 동양척식회사 등의 폭탄 투척 등을 적극 지원했다. 1926년에는 중국의 국민 정부가 중국 국민 혁명에 필요한 장교 양성을 위해 만든 황포군관학교에 김원봉을 비롯한 단원들과 함께 입교해 군사 교육과 간부 훈련을 받았다. 같은 해 한국, 중국, 인도,



권준장군



권태옥과 최장학 결혼 10주년(중경 임시정부에서 결혼)



권태옥 여사와 외아들 최현태



권준장군 흉상 제막식(2016.10.10.) 대구 상리공원



최재황 경위



경찰의 날 기념식에 경찰대표로 참석한 최재황 경위(오른쪽)



최재황 경위가 중경임시정부 관리소장(오른쪽)에게 권준장군 사진 기증

몽고, 안남, 대만인 등으로 조직된 동방포압박민족연합회(東方被壓迫民族聯合會)에 한국대표로 참석해 집행위원회에 선출되기도 했다. 1932년에는 남경(南京)에서 중국정부의 후원을 받아 한국인군사학교를 설립하고 그 교관으로 독립운동 간부를 양성하는 한편 민족혁명당에 입당해 활약했다. 1934년 중국군을 측면에서 지원하면서 항일전에 참석하기도 했다. 1937년 중일전쟁 때 조선의용군비서장으로 참전하기도 했다. 또한 장개석 국민당

군의 육군소장이 돼 대일(對日) 전쟁을 수행했다.

낯설고 물 섞은 타국에서의 독립운동은 언제나 위험했다. 그래서 독립운동가들은 일제의 감시망을 피하고 위험에 노출되는 것을 피하기 위해 다양한 이름으로 위장할 수밖에 없었다. 권준 장군 역시 수많은 이름을 사용한 듯하다. 권준 장군의 호는 백인(百忍)이다. 매순간 백번도 참아 했으리라. 권중환(權重煥)은 족보에 등록된 이름이고 그 이외에 권중석(權重錫), 강병수(姜炳秀), 진민각(陳民覺), 장종화(張從化), 양무(楊武), 장수화(張樹華) 등을 사용하며 활동했다.

권준 장군은 귀국 후 육군 장성으로 입대해 수도사단장 겸 수도경비사령관, 제3군관구사령관, 50사단장, 육군 제2훈련소장을 역임하고 1956년 육군소장으로 전역했다. 특히 권준 장군은 1950년 50사단장으로 사단을 지휘할 때 폭격으로 파괴된 안동의 태사묘를 중건하는데 혁혁한 공을 세웠다. 태사묘 중건에 대한 권준 장군의 공적 때문에 권인담 회장은 지난 2월 20일 개최된 상임위원회에서 권준 장군의 공적도 반드시 재조명할 필요가 있다고 했던 것이다.

경찰청에서 권준 장군을 재평가하기에 앞서 독립운동가 권준 장군의 불굴의 독

립정신과 군인정신을 기리기 위해 백인 권준장군기념사업회(회장 권영빈)와 제50보병사단은 지난 2016년 10월 10일에 과거 50사단이 주둔했던 대구 상리공원(서구 중리동) 내에 권준 장군 흉상 제막식을 거행한 바 있다. 이날 제막식에는 당시 경북도지사였던 김관용도지사를 비롯해 권영빈 권준장군기념사업회 회장, 서정철 대구경북병무청장, 대구경북보훈단체장 등 200여명이 참석해 성황리에 개최되었다.

2018년 10월 25일 제73주년 경찰의 날 기념식은 백범 기념관에서 개최되었다. 최재황 경위는 이때도 제3대 경무과장 권준 선생의 외증손인 덕택에 문재인 대통령과 한 자리에 앉아 환담할 수 있는 전국 경찰 6명에 뽑혔다고 한다. 최재황 경위 부인 안수경씨 역시 독립운동가 후손이다. 안수경씨 조부 안봉생 선생은 안중근 의사 가문으로 백범 김구 선생과 함께 독립운동을 했던 독립유공자다. 경찰청에서는 3.1운동 및 대한민국임시정부 100주년을 맞이해 임시정부 100주년 기념사업팀을 구성해 기념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기념사업 프로그램 중의 하나로 권준 장군의 후손을 초청할 예정이라고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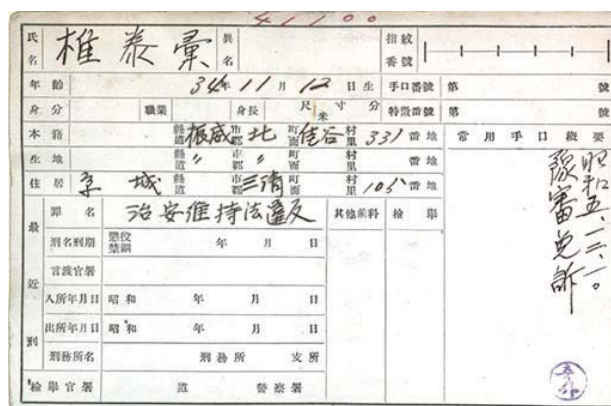
편집국장 권행완

독립운동가 권태휘

한국민족운동사학회(회장 조규태)와 평택문화원은 2018년 8월 10일 오후 평택시립도서관에서 "새롭게 밝히는 경기도 지역의 독립운동과 독립운동_평택지역의 독립운동을 중심으로"라는 학술회의를 개최했다. 이 학술회의에서 조규태 한성대 교수는 "권태휘의 생애와 민족운동"이라는 논문을 발표했다. 권태휘(추밀공과 장학공계 33세)는 조규태 교수가 발표하기 이전에 2016년 평택시사신문에서 "새로 발굴한 평택의 독립운동가"로 이미 주목을 받고 있었다.



권태휘 수형사진



권태휘의 일제감시대상인물카드 앞면

권태휘는 1897년 음력 11월 12일 경기도 진위군 북면 가곡리(현재 평택시 진위면 가곡리) 331번지에서 출생하였다. 평소에는 어릴 때의 이름인 권태휘로 주로 불렸으나 본명은 권익수(權益洙)이다. 키는 5족 3촌(약 160cm)으로 작은 편이었으며 하얀 피부에 얼굴은 둥글었다. 그러나 배일사상(排日思想)으로 무장하여 각지를 순회하며 불온한 언동을 하는(국사편찬위원회 한국근현대인물자료) 일본이 요주의 하는 인물로서(1927.9.26. 경성보통경찰서장, 요주의인의 행동에 관한 건) 늘 감시의 대상이었다.

아버지는 권종립(權鍾立, 1856)이고 어머니는 전주씨였다.(안동권씨 추밀공파대보) 아버지 권종립은 벼슬은 하지 않았지만 진사(進士)였다. 조부 권장규(權章圭, 1830)를 비롯하여 증조부 권희관(權熙觀, 1796), 고조부 권시흥(權時興, 1769)은 과거에 합격하거나 벼슬을 한 흔적은 보이지 않는다. 7대조인 권극중(權克中, 1648)이 좌랑(佐郎)을 지냈다는 기록이 보인다.(안동권씨 추밀공파대보) 권태휘가 일제에 체포되어 조사받았던 기록에 의하면 그는 양반으로 분류되었다.(국사편찬위원회 한국독립운동사자료 55권, 권익수 신문조사) 그러나 권씨 있는 가문은 아닌 듯하다. 그러나 그 시대에 진위공립보통학교를 졸업하고 경성부(현재 서울)에 거주하며 경성의학전문학교를 입학한 것으로 보아 경제적으로는 상당히 부유했던 듯하다.

권태휘는 '소학', '논어', '맹자', '대학', '중용', '통감절요' 등 한학을 공부했다. 이러한 한학의 토대 위에 경성병방학교와 경성의학전문학교에서 신학문을 배우면서 투철한 민족의식과 항일의식을 무장한 것으로 보인다.

권태휘는 3.1운동 때 만세시위에 가담했다가 1920년 9월에 보인법 위반죄로 경성북심법원에서 태형 90대에 처해진 적이 있다. 또 1920년 7월에는 조선 민족에게 독립사상을 일으키기 위해 "아, 슬프도다. 우리 민족이여, 자각하라. 자유가 없는 우리 민족이여 자각하라"는 유인물을 뿌리는 등의 '조선독립사건'으로 체포되어 경성지방법원에서 징역 10월을 언도받고 옥고를 치른다.(한민족독립운동사자료집 55권, 매일적분배포·만세시위·독서회사건신문·공판조사) 그러나 출옥하면 또다시 독립운동을 계획하고 실행했다. 권태휘의 부인 또한 독립운동을 하다(1919) 징역 2년에 처해지고 평양 감옥에서 복역 중에 1920년 11월 중에 감옥에서 병사하였다.(한국독립운동사자료집 55권, 권익수 신문조사, 경성지방법원 1921. 9. 20) 부부가 독립투사였던 셈이다.

이후 1924년 그는 사회기풍을 혁신하기 위해 혁청당(1926년 혁청당으로 변경)을 조직하여 문화운동을 전개하기도 했다. 그는 평택 출신 민세 안재홍 등과 교류하며 신간회 조직에 참여하여 활동하기도 했다. 뿐만 아니라 '신조선사'(동일보 1931.1.31.)를 설립하여 안재홍, 정인보 등과 다산 정약용의 '정다산전서', '담헌서' 등의 실학자들의 문집을 발간하며 신조선학 운동을 벌이기도 했다. 해방 후에는 여운영을 중심으로 조직된 건국준비위원회에 가담하여 김형선과 함께 교통부를 담당하였다. 그러나 그 지향하는 비는 자유주의사회 건설이 아니라 사회주의사회를 구축하는 것이었다. 이런 사상적인 간극으로 조선공산당계 인물들과 연결되면서 인민공화국에 참여하였고 결국 6.25 전쟁 후에 북한으로 가는 계기가 되었다.

권태휘는 좌우 이념이 난무하는 격변기에 비록 그 이념적 지향점은 달랐지만 조국의 독립을 위해 일제로부터 수탈 탄압을 받으며 투쟁했다. 그렇지만 분단된 현실은 그의 좌익계 활동을 포용하고 평가하기에는 정치사회적 분위기와 시대적 한계상황에 부딪힐 수밖에 없었다.

편집국장 권행완

광고, 독자투고, 구독 신청하세요

안동권씨 종보에서는 기업광고, 단체모임 등의 광고와 독자들의 투고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종보는 안동권씨의 소통공간입니다. 종보는 열려 있습니다. 누구나 기고 등을 통해 참여할 수 있습니다. 족친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 광고, 독자투고, 구독신청 연락처 ❖

☎ 02)2695-2483~4
FAX 02)2695-2485
E-mail ankwon2695@naver.com
andongkwonmun@daum.net
종보 대금 납부 계좌번호: 안동권씨 대종회
033237-04-006941(국민)

안동권씨 대종회

안동권씨 종보 대금 납부 안내

종보 대금 **3만원** 납부는 100만 족친의 번영과 화합의 상징입니다.

❖ 예금계좌 : 농협 317-0009-7471-41(안동권씨 대종회)
❖ 문의전화 : 02)2695-2483~4

안동권씨 대종회